청소년 운전면허 취득부터 보험 가입까지

방학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청소년들이 많다. 캘리포니아주는 생일 기준으로 15.5세가 되면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임시 허가증(Provisional Permit)을 받을 수 있다.

■ Provisional Permit

Provisional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운전학교나 온라인으로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이 수료 증과 함께 운전면허 신청서 'DL44' 양식을 DMV(Department of Moter Vehicles)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청소년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는 경우 보호자가 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호자는 여기에 서명해야 한다. 이후 필기시험을 통과(46문항 중39문항 이상 맞춰야 함)하면 Provisional Permit을 발급해준다.

■ 실기시험(Driving Test)

Provisional Permit을 받으면 주정부 허가 운전교육기 관에서 6시간 이상의 운전 실기 교육을 받고 추가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25세 이상의 성인에게 50시간 이상의 운전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실기 시험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50시간의 운전 교육 중 10시간은 야간 운전 교육이어야 한다.



실기 시험은 총 3회까지 볼 수 있으며, 모두 불합격하는 경우 Provisional Permit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운전면허 신청서를 처음 제출하고 1년 안에실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3회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임시면허증(Provisional Driver License)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정식 면허증이 아닌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이 임시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

임시면허증으로 운전하는 동안은 20세 미만을 동승할 수 없다. 만약 20세 미만의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25세 이상의 성인도 동승해야 한다.

또 임시면허증을 받고 첫 1년 동안은 25세 이상 성인 동승 없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전할 수 없다.

■ 보험 가입

1. 자너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부모의 보험에 올리는 것이 더 저렴하다.

2.학교 성적이 좋으면 보험료 책정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많은 보험사가 평균 'B' 이상 학생에게 25 %까지 할인하여 준다. 또 인터넷에서 틴스마트라는 프로그램을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추가로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가 운전 하는 차량은 현재가로 가격이 가장 싼 차로 지정해야 대 차, 대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4. 안전 기준(safety rating)이 높은 차를 타게 되면 보험 료 책정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가장 싼 차가 가장 보험 료가 적은 것은 아닐 수가 있다. 보험료에 관해 여러 보 험사에 알아보도록 한다.



5.기타

가. 아이들에게 보험료와 자동차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아이들이 운전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비용에 대한 개념도 알게 된다.

나. 가능하다면 아이들에게 대중 교통 시설을 이용하게 하라. 그들이 적게 운전하면 할 수록 보험료가 적고 기름값도 절약된다.

다.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못하게 경고한다. 사고 시 보험료가 오르는 경제적인 문제 뿐아니라 자신 또는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는 가장 큰 청소년 사망 원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16-17세 운전자들이 24세 이상 성인들보다 사고율이 4.5배로 높다. 또 17-18세는 3배, 19-20세는 2.5배, 21-24세는 2배로 높다.

19세 이하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 원인으로는 과 속운전(3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통행 위 반(20.6%), 회전 실수(14.8%), 신호등 및 스톱 사인 위반(8.1%), 음주운전(5.1%), 차선 변경(4.3%) 순으로 많다.

전미자동차협회(AAA) 교통안전재단과 아이오와대학의 연구 결과 청소년 우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의 약60%는 부주의 운전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의 84%는 동승자 나이가 16-19세였다.

